

끓은 자리 드러낸 야단법석, 한국불교 희망 보인다

도법 스님

본래부처와 팔정도

講論

②

지리산 야단법석 마지막 날인 8월 18일, 네 번째 법주 도법 스님의 법석에서는 야단법석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다.

항봉 스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드린다. 이런 야단법석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내용과 색깔이 다르더라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종교적 체험 이후 20여 년을 보낸 후 도법 스님을 만나 "나 깨웠다, 나를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에게 선방 수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 법석에 참여하게 됐다. 어록, 경전을 물어봐도 좋다. 어느 것이든 좋다.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잠으로 어디서든지 토론하겠다. 회합심으로 살아가겠다.

도법 스님: 내 소감은 법석 시간에 말한 것들이 소감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화엄 법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 자리는 여기 모인 우리끼리만 좋자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문제를 드러내야 했다. 시기 질투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네 재산을 빼앗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

곰팡이는 확대·재생산 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 불교는 드러내면 살아난다. 총무원, 봉암사, 봉도사, 해인사 등 한국불교 방방곡곡에서 무애실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드러내면 바람과 햇빛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본다. 잠깐 수행이고 해답이라고 본다.

성전 스님: 처음 주제를 접하고 한국 승단의 문제, 수행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 재가자들이 함께한다는 점이 염려스러웠다. 삼보 중 하나로 존경받아야 할 출가자가 재가자들 앞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법회를 마치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복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불교는 위선과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도법 스님의 "10년 선방 다니는 것보다는 이번 4박5일 동안의 야단법석이 더 낫다"는 말은 한국불교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실상사 작은학교 법당 밖에서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이택회 거사: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 정법불교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진오 스님: 과거지향적인 것은 옳지 않다. 종단이 바로 서고 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봉사나 수행이 더 필요하다. 존경받는 큰 스님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울림이 홍보가 돼서 불교는 허영과 사치에서 벗어나 희망이 돼야 한다.

임완수 거사: 나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큰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법문을 하는 지가 궁금해서 왔다. 첫 날은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둘째 날 수행기를 들으면서 "저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날,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임영광 거사: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은 불자들이라면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면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비 스님: "재가자들 앞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은 재가자들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다는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일회성 성토로 끝나지 말고 방방곡곡서 이어지길...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짜 보살, 진짜 부처가 되자

법석이 끝났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출·재가자들이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박오광 거사: 불교를 소설 수준으로 알던 내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불교를 알기 전에는 불교 공부는 해국 스님처럼 손가락을 자르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봉·도법·무비 스님을 뵈면서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작은 실마리를 안고 간다.

전영철 목사: 2600년 불교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새로운 불교의 중흥을 일러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기탄 없는 토론은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도를 넘지 않는 절제가 돋보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불국정토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 역대 대승보살, 선사들의 뜻을 받들어 참 대승, 새로운 대승불교로서의 정법불교를 세우려는 절실한 대발원의 장이었다.

월암 스님: 건전한 비판의 장(야단법석)에서 비판 대상의 한 사람(선방 수좌)으로서 내가 곰팡이가 아닌가 한 다. 선원과 수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선원과 수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자리. 수좌스님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야단법석의 햇살이 불타올라. 조계종, 한국불교, 전 중생의 야단법석이 돼서 화엄장엄의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

각목 스님: 해국 스님의 말씀을 6년 만에 다시 듣는 자리였다. 선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싶어졌다. 해국 스님의 "간화선이 전부가 아니다. 수행체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은 간화선이 다시 일어서 발판을 다진 것이라 생각한다.

노치환 거사: 한나라당에서 활동 중이다. 여기서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현정부가 불교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는 말을 항상 듣다보니 이런 자리에 오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

환경문제는 절집처럼 생활한다면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 문제가 현실 부분에서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은 도농통합 때문에 환경손실 만큼의 경제적 손실

이 있었다. 스님과 사부대중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듯 MB도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법 스님: 한나라당 측과 야단법석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토론자(비구니): 때로는 환희심, 때로는 먹먹해졌다.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고 자비심을 발원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불교정화운동의 아픈 역사, 스님들의 해외여행과 숙박업소 이용 등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재가자들이 있어 고맷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

승가가 청정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해 달라. 수행하는 스님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따뜻하게 봐 달라.

재연 스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가부좌와 근엄함, 잠선 수행도 중요하다. 또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되돌리고 되돌리는 것이 수행이다. 연기와 무아를 깊이 있게 알게 하며 부처가 된다거나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때 부처다. 회생, 헌신이 자비가 아니라, 친구의 아픔, 남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만큼 불성이 있는 모두가 중요하다. 이제 돌아가서 진짜 부처·보살이 돼보자.

법인 스님: 한국불교의 문제가 하심탄화하게 드러나니 고통스럽다. 재가불자들의 집착을 하소연과 안타까움, 원망, 애정, 격려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때 신뢰와 존경, 격려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4박5일 야단법석이 제대로 이뤄졌다. 특별취재팀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정무원 초코파이고봉스님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i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무원 유기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짓던 중 새삼스럽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림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와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제임: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탄저이나 썩짐에 썩어 먹어도 되며 파피라키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효능: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i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영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부터 출하 된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분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격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민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짐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자빌딩 1505호)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 = 베트남 = 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격조건 = 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해 합장